

금호주니어콘서트, 호남예술제 출신들 약진

클래식 유망주 꿈의 무대

최에서·정서현·김연지·허소울

김경혜·조진영·박서영 등 7명

7~8월 단독 콘서트 열어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 지난 2010년부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유·스퀘어문화관이 진행하고 있는 ‘금호주니어콘서트’의 캐치프레이즈다. 클래식 음악 토양이 탄탄하지 않은 지역 상황에서 지난 2009년 문을 연 클래식 음악 전용홀 금호아트홀(306석)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오아시스같은 공간이었다. 더불어 금호주니어콘서트는 클래식 아티스트의 꿈을 키워주는 젊은 음악인들을 응원하고 키워내는 행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금호주니어 콘서트는 만 26세 이하 음악 전공자 모두에게 문화가 열려 있다. 특히 지역 음악 영재 발굴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오디션을 지역 출신들에게만 참여 기회를 준다.

8회째를 맞는 이번 오디션에는 초등학교 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모두 55명이 참여해 10명이 선정됐다.

합격자 중 호남예술제 출신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전체 10명 중 7명이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지난 1956년 첫 대회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는 문화예술행사다. 62회를 맞는 올해 대회는 오는 4월 19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지역 클래식 영재들을 키우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올해 모두 10명의 합격자를 선정했다.

〈유·스퀘어문화관 제공〉

올 합격자 중엔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자가 3명 포함됐다. 광주예고 1학년 때 최고상을 받았던 조진영(첼로·한국예술종합학교 3년)씨, 전남예고 3학년으로 지난해 열렸던 61회 대회에서 역시 최고상을 수상한 김연지(피아노·이화여자대학교 1년)씨가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허소울(피아노·순천하늘샘국제기독교학교 4년)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참여한 60회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3·4학년이 겸합한 지난해 공쿠르에서는 금상을 수상했다.

그밖에 올해 최연소 합격자인 최에서(바이올린·송원초 3년)양은 2015년 제 60

회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정서현(바이올린·광주예고 2년)양은 2013년, 2014년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또 박서영(플루트·외운중 3년)양은 지난해 관악부분 금상을 받았으며 피아노의 김경혜(전남대 졸)씨도 호남예술제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다.

매년 2월 오디션을 진행하는 금호주니어콘서트는 지금까지 모두 87명을 선발했다. 특히 1회 합격자인 피아니스트 최현호씨가 베를린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때 금호주니어콘서트에 합격했던 남린(바이올린·예원학교)양과 유지후(플루트)군은 중학생이 된 후에도 꾸준히 꿈을 키워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이다.

금호주니어콘서트는 매년 7~8월 합격자들에게 단독 콘서트 무대를 제공한다. 또 음악 영재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기획공연을 구성, 지난해부터는 ‘영아티스트 콘서트’(금호주니어콘서트 리마인드 연주회)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리옹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김민준씨가 ‘영아티스트 콘서트’를 통해 독주회를 가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흥겨운 국악 선을 타고 봄맞이 가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5일 신춘음악회 개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 신춘음악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가수 이안 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 곡은 조석연이 작곡한 관현악곡 ‘도약’이다. 이어 김광복 상임지휘자가 광활한 풍광의 초원을 주제로 잔느노르가 작곡한 피리협주곡 ‘셀스 타르’를 협연한다.

이안씨는 국악 가요 ‘불고기 자리’, ‘아리요’를 들려주며 가야금 주자 김미경씨가 가야금 협주곡 ‘춘-초소의 봄’을 협연한다. 북한 작곡가 공영송이 작곡한 개량악기로 편곡한 가야금 협주곡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약동하는 봄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민간 축제에서 축하 행렬이나 연회에서 자주 연주돼 민속 음악 문화를 주도해온 관현악 ‘대풍류’로 김덕속(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씨의 승무가 함께한다.

피날레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소리꾼 장사익이 장식한다. 그는 김승기 시에 가락을 부친 ‘역’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꽃구경’, 대표곡 ‘짚레꽃’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415-54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사익

1000원으로 행복한 문화충전

오늘 문예회관 소극장

1000원으로 누리는 제83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매달 두번째 월요일)이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이날 공연에는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스트링 앙상블이 출연해 ‘봄의 속삭임’을 주제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서는 친숙한 클래식 작품인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 무지크’를 시작으로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미드 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Op.40’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시아 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트링 앙상블은 아시아 아트 심포니오케스트라 소속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원의 낭만 공연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31회 광주연극제

‘오거리 사진관’ 최우수작품상

대한민국연극제 광주 대표로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제31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유피씨어터의 ‘오거리 사진관’(사진)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부터 1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연극제에는 ‘오거리 사진관’, ‘열·아리의 ‘매콤 삼니다’, 진달래 피네의 ‘용궁엔 용왕이 없다’, 시민의 ‘꽃은 저도 향기는 난다’, DIC의 ‘내사랑 김복자’ 등 모두 5팀이 참여, 경연을 펼쳤다. 대상을 수상한 ‘오거리 사진관’은 치매

를 겪는 당사자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강대홍씨 등 심사위원들은 ‘오거리 사진관’에 대해 “배우들의 고된 역량과 드라마의 구성력, 관객들과의 호흡과 호흡이 좋았다”며 “또한 과하지 않는 연출력으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무대를 완성한 게 큰 장점이 작품”이라고 평했다.

유피씨어터는 오는 6월 13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그밖에 연출상은 극단 시민의 ‘꽃은 저



도 향기는 난다’를 연출한 김민호 동신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또 우수연기상은 최용규(극단 시민), 박혜숙(극단 유피씨어터)씨

가, 신인연기상은 최효주(극단 시민), 송민중(극단 DIC)씨가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②
몸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품피두센터

노중준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춘열 FA '100억' 대어 기아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

예향 초대석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물명인③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복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문화 화재
문인 배출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영음,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트렌드 따라잡기③
무모해도 좋아, 행복하니까 'So, yolo'

남도 문화특집
강진
다산과 영랑시, 질트럭 타고 강진만 일찍 만난날고기백만 갈매나무 등 전라문의 밤 노트엔마랑수선사상 후기인물 정지호지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⑤
문학과 궁국의 뜨거운 품은 정음 화신향